2021 년 9 월 28 일
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

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20 차)
- 일본정부의 「긴급사태선언」에 해제 따라 -

일본정부로부터의「긴급사태선언(4 번째)」이 9 월 30 일부로 종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개미사」의 중지를 10 월 1 일(금) 부터 해제합니다. 금후, 당분간 성당활동은「대응(제 14 차)」에 따라 행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그러나, 이번 선언의 종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접종이 늘어감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위해, 3 밀을 피하기 등, 한층 더 신경써주셔서, 서로 주의 깊게 행동 합시다.

주요한 제한은 아래의 세 가지 입니다.

1. 주일마사의 횟수제한 : 일요일에 1 회, 토요일에 1 회(특전미사)로 제한 합니다만, 모든 신도가 월 1 회는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미사를 2 회 할 수 있도록 허가 합니다.
2. 미사는, 계속하여, 「일본어 미사」, 혹은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신자들의 기도나 독서의 일부를 외국어로 행하는 것」만을 허가합니다.
3. 성당활동은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불가결한 것(장례 등)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요.

(또한, 코로나 19 가 재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침을 발표하겠습니다)